산업융합연구 제18권 제4호 pp. 77-86, 2020
ISSN 2635-8875 / e-ISSN 2672-0124
https://doi.org/10.22678/JIC.2020.18.4.077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장영미[1], 박연희[1*]
[1]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confidence in performance of core nursing skill on nursing student's 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Young-Mi Jang[1], YeonHee Park[1*],
[1]Professor, Dep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 임상실습 적응 정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간호대학생 4학년 207명에게 자가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24.0을 이용하여 t-test,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비판적 사고성향은 음의 상관관계(r=-.18, p=.010)로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양의 상관관계(r=.25, p<.001),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r=-.17, p=.017)를 나타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적응과 양의 상관관계(r=.44, p<.001)를 보였고, 임상실습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β=.43)으로 나타났으며(F=18.34, p<.001), 설명력은 약 23.1%였다. 이상과 같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 받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파악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임상실습, 비판적 사고, 스트레스, 핵심기본간호술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grasp the critical thinking tendency, clinical practice stress, core basic nursing confidence, and degree of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From June to July 2019, 207 students in the fourth year of nursing college were surveyed through their own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v24.0.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ritical thinking tendency(r=-.18, p=.010). The core self-confidence practice self-confiden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ritical thinking tendency(r=.25, p<.001),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r=-.17, p=.017).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r=.44, p<.001), and the factor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was stress(β=.40) (F=18.34,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about 23.1%. As mentioned above, stress brings a positive change to clinical practice, so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tress factors received from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reflect them in curriculum development.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Critical thinking, Stress, Core nursing skill

*Corresponding Author : YeonHee Park(yhpark@dst.ac.kr)
Received July 23, 2020 Revised August 6, 2020
Accepted August 21, 2020 Published August 31, 2020

1. 서론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간호학문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과 기술들을 임상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비판적 사고와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 과정이다[1].

하지만 간호대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낯선 임상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임상의 예상치 못한 상황, 과중한 업무, 모호한 자신의 역할 등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 또한 임상실습이 필수적임에도 실습교육의 대부분이 관찰로 제한되는 등 임상실습 교육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 간호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되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1,2]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교육의 중요한 성과인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이나 학습능력을 저하시켜[3]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의 적응을 방해하고 있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임상실습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4,5].

비판적 사고는 사실 혹은 근거에 기초한 판단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분명하게 하도록 하고 관련성 있는 부분에 대해 일관성 있는 사고를 하는 것으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6].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대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상수행능력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7] 비판적 사고성향 증진을 위해 간호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여러 능력 중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기술이며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간호술이다[8]. 간호대학생들이 핵심기본간호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쉽게 적응할 수 없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간호교육자들은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을 포함한 기본간호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간호교육의 궁극 목표가 이론 지식의 실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비판적 사고성향과 핵심기본간호술을 포함한 임상수행능력은 간호교육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어[9,10],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임상실습 적응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적응은 학생들이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며[2], 졸업 후 간호사로서 임상에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8].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 및 임상실습적응 수준을 파악해 보고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 임상실습 적응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 임상실습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 임상실습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 임상실습 적응 정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 임상

실습 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각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D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 산출은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기준으로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으로 계산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207명으로 산출되었다. 10% 탈락률을 고려하여 23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이 가운데 자료가 불성실한 응답 23부를 제외하여 총 20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연구도구

3.3.1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Park[11]이 개발하고 Go[12]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지적 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7문항, 지적정직 6문항, 신중성 3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4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19점에서 95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Go[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3이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6이었다.

3.3.2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과 Srivastave[13]가 개발하고, Kim과 Lee[14]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범위는 24점에서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다.

3.3.3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개발한 핵심기본간호술 20개 항목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 자신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7이었다.

3.3.4 임상실습 적응

임상실습 적응은 Park[1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현장실습 정서반응 5문항, 현장실습을 통한 전공이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9점에서 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장실습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Park[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3이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61 이었다.

3.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9-003-014)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이며, D광역시 D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대상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연구 취약집단 보호측면에서 학과 교수가 연구자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보조원이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 조사 도중 중단할 권리,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한 뒤 연구 참여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설문에 응해준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으로 음료와 문구를 지급하였다.

3.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상관분석을 하였고,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명목변수인

성별과 서열변수인 대인관계는 더미처리 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여성이 91.3%였고, 연령은 만 연령을 기준으로 21~23 세가 66.7%였으며, 전체 평균연령은 24.31 세였다. 종교 없음이 59.4%였고, 거주상태는 혼자 자취하는 경우가 50.2%,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44.0%였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37.7%, 셋째가 33.8%였고, 경제수준은 중이 81.2%였다. 학업성취 수준은 중이 72.0%, 대인관계는 중이 54.1%, 상이 44.0%이었다.

4.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 임상실습적응 정도

연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62.87 점(5 점 만점에 3.31 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72.21 점(5 점 만점에 3.01 점),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은 77.86 점(5 점 만점에 3.89 점), 임상실습적응 정도는 28.97 점(5 점 만점에 3.22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 임상실습적응 차이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t=-2.49, p=.023)와 임상실습 적응(t=-3.03, p=.003)은 여학생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F=4.04, p=.019), 학성성취 수준이 중인 학생(3.06±0.56)이 하인 학생(2.81±0.57)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높았다. 대인관계 정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3.97, p=.020), 사후분석 결과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과 평균인 학생의 스트레스 점수는 유의수준이 근접해 있을 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1). 대인관계에 따른 임상실습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66, p=.002), 사후검정 결과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3.11±0.36)보다 중간정도인 학생(3.32±0.5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상실습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7)

Variable	Categories	n (%) or Mean±SD
Gender	Male	18 (8.7)
	Female	189 (91.3)
Age(year)		24.31±3.85
	21~23	138 (66.6)
	24~29	56 (27.1)
	≥30	13 (6.3)
Religion	Existence	84 (40.6)
	Nonexistence	123 (59.4)
Housing type	With family	91 (44.0)
	On-campus dormitory	4 (1.9)
	With other person	5 (2.4)
	Alone(off-campus housing)	104 (50.2)
	Ect.	3 (1.5)
Birth order	1st	78 (37.7)
	2nd	46 (22.2)
	3rd	70 (33.8)
	4th	13 (6.3)
Economic level	High	11 (5.3)
	Middle	168 (81.2)
	Low	28 (13.5)
Academic achievement	Good	17 (8.2)
	Average	149 (72.0)
	Bad	41 (19.8)
Interpersonal relation	Good	91 (44.0)
	Average	112 (54.1)
	Bad	4 (1.9)

4.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 임상실습적응의 상관관계

간호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비판적 사고성향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18, p=.010).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비판적 사고성향(r=.25,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r=-.17, p=.017)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임상실습 적응은 임상실습 스트레스(r=.44,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 and 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of Participant (N=207)

Variable	Item	Item		Total	
		Mean±SD	Range	Mean±SD	Ran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9	3.31±0.32	1~5	62.87±6.12	19~95
Stress of clinical practice	24	3.01±0.54	1~5	72.21±12.99	24~120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	20	3.89±0.60	1~5	77.86±11.98	20~100
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9	3.22±0.46	1~5	28.97±4.18	9~45

Table 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 and 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7)

Variable	Categories	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		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M±SD	t of F (*p*)	M±SD	t of F (*p*)	M±SD	t of F (*p*)	M±SD	t of F (*p*)
Gender	Male	18	3.41±0.34	1.42	2.61±0.76	-2.49	4.13±0.70	1.77	2.91±0.57	-3.03
	Female	189	3.30±0.32	(.156)	3.06±0.53	(.023)	3.87±0.59	(.078)	3.25±0.44	(.003)
Age (year)	21~23	138	3.28±0.32	1.87	3.03±0.52	0.10	3.85±0.56	1.36	3.26±0.45	1.96
	24~29	56	3.34±0.32	(.158)	3.02±0.72	(.903)	4.00±0.68	(.259)	3.12±0.51	(.144)
	≥30	13	3.45±0.37		2.96±0.28		3.92±0.63		3.22±0.38	
Religion	Existence	84	3.31±0.30	0.11	3.01±0.53	-0.19	3.92±0.56	0.45	3.24±0.46	0.60
	Nonexistence	123	3.31±0.34	(.917)	3.03±0.59	(.851)	3.88±0.62	(.657)	3.20±0.47	(.547)
Housing type	With family	91	3.28±0.31		3.01±0.55		3.91±0.54		3.20±0.49	
	On-campus dormitory	4	3.13±0.16		3.29±0.52		3.64±0.59		3.67±0.20	
	With other person	5	3.18±0.38	1.78	3.38±0.59	0.77	4.08±0.80	0.44	3.04±0.55	1.29
	Alone(off-campus housing)	104	3.35±0.33	(.134)	3.00±0.59	(.546)	3.88±0.64	(.778)	3.22±0..44	(.277)
	Ect.	3	3.02±0.32		3.10±0.17		3.67±0.59		3.41±0.36	
Birth order	1st	78	3.34±0.33		2.98±0.54		3.90±0.60		3.20±0.49	
	2nd	46	3.28±0.30	0.55	3.12±0.64	0.62	3.84±0.67	0.20	3.22±0.49	0.72
	3rd	70	3.30±0.33	(.647)	3.00±0.56	(.601)	3.91±0.57	(.894)	3.27±0.41	(.542)
	4th	13	3.27±0.34		3.01±0.56		3.98±0.56		3.08±0.51	
Economic level	Good	11	3.24±0.43	0.41	3.21±0.55	0.99	3.94±0.77	0.57	3.23±0.53	1.30
	Average	168	3.32±0.32	(.662)	3.02±0.58	(.313)	3.91±0.59	(.568)	3.24±0.45	(.276)
	Bad	28	3.26±0.28		2.93±0.54		3.78±0.60		3.09±0.50	
Academic achievement	Good[a]	17	3.44±0.40	1.90	3.18±0.32	4.04	3.88±0.67	0.05	3.24±0.41	2.86
	Average[b]	149	3.31±0.32	(.152)	3.06±0.56	(.019)	3.90±0.58	(.948)	3.26±0.46	(.060)
	Bad[c]	41	3.26±0.30		2.81±0.57	b>c†	3.87±0.66		3.07±0.48	
Interpersonal relation	Good[a]	91	3.32±0.32	1.19	2.91±0.48	3.97	3.90±0.58	0.02	3.11±0.36	6.66
	Average[b]	112	3.31±0.32	(.307)	3.10±0.61	(.020)	3.89±0.60	(.983)	3.32±0.51	(.002)
	Bad[c]	4	3.07±0.20		3.41±0.83		3.93±1.08		2.92±0.55	a<b†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and major variables (N=207)

Variables	a) r(*p*)	b) r(*p*)	c) r(*p*)	d) r(*p*)
[a]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			
[b]Stress of clinical practice	-.18 (.010)	1		
[c]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	.25 (<.001)	-.17 (.017)	1	
[d]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04 (.614)	.44 (<.001)	-.03 (.636)	1

4.5 대상자의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 대인관계와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Durbin-Waston 통계량은 1.89 종속변수는 독립적이었으며, Tolerance 는 .89-.95, 독립변수 간 VIF 도 1.05~1.13 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결과 대인관계 좋음(t=-2.33, p=.021, 대인관계 나쁨(t=-2.11, p=.036), 임상실습 스트레스(t=6.59, p<.001)가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23.1%였으며(F=11.34, p<.001), 임상실습 스트레스(β=.43)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Table 5).

이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적응이 높아지며, 대인관계가 좋거나 나쁘다고 느낄 때 임상실습 적응이 감소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 향상을 위한 전략마련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 중 3.31점이었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2~4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 등[16]의 연구에서는 3.44점,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Yoon[17]의 연구에서 3.57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등[18]의 연구에서 3.60점인 것 보다는 조금 낮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01점으로 3.56점인 Whang[19]의 연구, 3.3점인 Kim & Lee[20]의 연구, 3.16점인 Kim 등[18]의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구마다 대상자의 학년과 연구도구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중이상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중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49,

Table 5. Factors Influencing 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N=207)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3.67	3.62		3.77	<.001
Gender(female)†	1.38	.95	.09	1.45	.147
Interpersonal relation(good)†	-1.23	.53	-.15	-2.33	.021
Interpersonal relation(bad)†	-4.00	1.89	-.13	-2.11	.03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7	.044	.10	1.63	.105
Stress of clinical practice	.13	.02	.43	6.59	<.001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	.01	.02	.03	.40	.688
		Adj.R^2=.23, F=11.34, p<.001			

† Dummy variables

p=.023). 이는 Yang 등[21]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5.302, p<.01) 그러나 Kim 등[18]의 연구와 Whang[19]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이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0.10, p=.903), Yang 등[2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F=1.816, p=0.167).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은 3.89점으로 나타났으나, Lee와 Park[22]의 연구에서 2.96점으로 나타난 것 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는 연구 대상자와 측정도구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이, 성별, 대인관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Lee와 Park[2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Kim 등[2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p=.045)이, 연령(p<.001)과 학년(p<.001)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p<.001)와 임상실습 만족도(p<.001)가 높을수록 그리고 임상실습 중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빈도(p<.001)가 증가할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적응은 3.22점으로, Kim과 Sin[2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임상실습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03, p=.003). 그러나 Kim과 Sin[2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적응 정도의 차이는 없었고, 실습 병원의 유형이나 이전 실습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음의 상관관계(r=-.18, p=.010)를 보였다. 이는 Lee 등[25] 의 연구 결과와 같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ung[2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해석되며, 복잡하고 어려운 간호현장에서 자율성과 신중한 대처를 하게 될 때 임상실습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양의 상관관계(r=.25, p<.001)로 나타났다.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경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Kim[27], Park과 Han[28] 연구나 비판적 사고성향이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Park과 Hong의 연구[29]와 유사한 결과이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바 있으며,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교수자는 간호학과 학생의 비판적으로 사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반에 적용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r=-.17, p=.017)를 나타냈다. 이는 어떠한 일을 뜻대로 이루고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낮다고 한 선행연구[30-31] 결과와 유사하나 Kim 과 Hwan의 연구[9]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수행 능력이 증가했다고 한 결과와는 달랐다.

임상실습 적응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임상실습 적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0]. 그러나, 지나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 받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3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 예측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3.1%였다.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스트레스(β=.40,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교육자는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생들의 임상실습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과 교육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핵심간호술 교육은 물론 비판적 사고성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수법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33].

6.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 임상실습 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의 D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20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9년 6월부터 7월 까지 시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약 23.1%였다.

본 연구에서 적당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임상실습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간호대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비판적 사고성향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적응에 대해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적응을 높일 수 있는 중재가 요구되며,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적응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D. N. Oh, Y. R. Um, C. Kim, S. J. Ju, J. H. Jung & M. S. Park. (2016). The cop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rying to be a meaningful pres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430-440. DOI: 10.5977/jkasne.2016.22.4.430

[2] S. Y. Kang. (2016). The social adjustment process of nursing students in th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Qualitative Research. 1*, 9-19.

[3] J. Y. Kim, M. K. Kim & J. Y. Cho.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669-678. DOI: 10.5762/KAIS.2017.18.1.669

[4] H. S. Yu. (2015).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2).* 1129-1144. DOI: G704-000930.2015.17.2.009

[5] K. M Park. (2020). A Study on Clinical Practice Stress, Social Support, and Field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8)*, 49-62. DOI : 10.22251/jlcci.2020.20.8.49

[6] C. K. Shepherd, M. McCunnis, L. Brown & M. Hair. (2010). Investigating the use of simulation as a teaching strategy. *Nursing Standard, 24(35)*, 42-48.

[7] O. S. Lee, M. O. Gu & M. J. Kim. (2015).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 380-388. DOI: 10.5762/KAIS.2015.16.

[8] Y. H. Kim, S. Y. Hwang & A. Y. Lee. (2014).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37-46. DOI: 10.5977/jkasne.2014.20.1.3

[9] S. M. Kim & T. Y. Hwang. (2014). Comparison of Stress Levels Arising in Clinical Settings, Stress Coping Mechanisms and Clinical Competency between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0(4)*, 606-616. DOI : 10.5977/jkasne.2014.20.4.606

[10] H. S. Kim. (2002). A Study on Relatu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3(1), 64-76.

[11] S. H. Park. (1999). *Effects of the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college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2] G. J. Go. (2003).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13] D. L. Beck & R. Srivastava. (2006).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1991). *Journal of Nursing Education,30(3),* 427-133.
DOI : 10.3928/0148-4834-19910301-08

[14] S. L. Kim & J. E. Le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0)*, 98-106.

[15] S. Y. Park.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16] J. W. Park, C. J. Kim, Y. S. Kim, M. S. Yoo, S. M Chae, J. A. Ahn & H. R. Yoo. (2012).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and 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4 (3)*, 223-231.
DOI : 10.3946/kjme.2012.24.3.223

[17] J. Yoon. (2008). A study on the critical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 Focusing on a school applying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4(2)*, 159-166.

[18] I. S. Kim, Y. K Jang, S. H. Park & S. H. Song.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19] S. J. Whan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20] S. L. Kim & J. E. Le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 - 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11(1)*, 98-106.

[21] Y. K. Yang, K. S. Kan, M. H. Bae & S. H. Yang. (2014).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10)*, 23-33.

[22] I. S. Lee & C. S. Park. (2015). Factor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2(3)*, 297-307.
DOI : 10.7739/jkafn.2015.22.3.297

[23] D. O. Kim. S. W. Byun & H. J. Lee. (2019). The factor influence of clinical competency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7)*, 85-92. DOI : 10.5762/KAIS.2019.20.7.85

[24] S. Y. Kim & Y. S. Shin. (2018). Factor influencing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 234-242. DOI : 10.5762/KAIS.2018.19.9.234

[25] A. K. Lee, H. S. You & I. H. Park. (2009).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2)*, 154-163. DOI : 10.11111/jkana.2015.21.2.154

[26] M. H. Sung & O. B. Eum. (2009).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1)*, 26-36.

[27] M. O. Kim. (2016).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609-617. DOI : 10.5762/KAIS.2016.17.6.609

[28] H. S. Park & J. Y. Han. (2015).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3),* 695-705.
DOI : 10.74 65/jkdi.2015.26.3.695

[29] J. A. Park & J. Y. Hong. (2016).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s Basic Nurs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Comtents Assocoation. 16(1),* 342-351.
DOI : 10.5392/JKCA.2016.16.01.342

[30] M. Y. Moon. (2017). Effects of Convergence-based Integrated simulation Practice program on the Clinical decision making, Problem solving process, Clinical competence and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7),* 271-284.
DOI : 10.14400/JDC.2017.15.7.271

[31] J. Y. Kim, M. K. Kim & J. Y. Cho.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669-678.
DOI : 10.5762/KAIS.2017.18.1.669

[32] K. M Park. (2020). A Study on Clinical Practice Stress, Social Support, and Field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8)*, 49-62. DOI : 10.22251/jlcci.2020.20.8.49

[33] E. A. Kim & K. S Jang. (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12-322.
DOI : 10.5977/jkasne.2012.18.2.312

장영미 (YoungMi Jang) [정회원]

- 2002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9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교육, 간호윤리, 만성질환
- E-Mail : jym79@dst.ac.kr

박연희 (Yeonhee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2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을지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심뇌혈관질환, 간호교육
- E-Mail : yhpark@dst.ac.kr